

# 이인임[李仁任]

## 노회한 정치인, 사후의 비판은 피하지 못하다

미상 ~ 1388년(우왕 14)

### 1 개요

이인임(李仁任)은 고려말 공민왕(恭愍王)~우왕(禡王) 시대에 걸쳐 활동했던 정치가이다. 공민왕의 치세에서 정치적 감각과 능력을 발휘하며 성공적인 출세 가도를 달렸다. 이어 우왕 즉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권력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이후 각종 비리에 연루되는 한편, 외교 정책을 둘러싸고 정계에 숙청을 단행하는 등 많은 폐단을 일으켰다. 비리에 연루되어 유배되었다가 사망하였으며, 『고려사(高麗史)』 간신 열전에 실렸다.

### 2 뛰어난 정치 감각으로 공민왕의 측근이 되다

이인임의 출생 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충렬왕(忠烈王)~충혜왕(忠惠王) 시대의 명망 높은 정치가였던 이조년(李兆年)의 손자였다. 음서로 관직에 오른 이인임은 전객시승(典客寺丞)과 전법총랑(典法總郎)을 거쳐 1358년(공민왕 7)에는 좌부승선(左副承宣)의 자리에 올랐다. 왕명을 들이고 내보내는 정3품의 요직이었다.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이인임의 활약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두 차례의 전란 과정에서였다. 우선 1359년(공민왕 8)부터 시작된 홍건적(紅巾賊)의 침입을 격퇴하는 데에 공을 세웠다. 1차 침입 때에는 서경존무사(西京存撫使)에 임명되어 적의 침입에 대비하였고, 홍건적이 평정된 뒤에 2등공신에 책봉되었다. 이어서 홍건적이 2차 침입에서 개경(開京)을 점령하자, 1362년(공민왕 11)에 여러 장수들과 개경을 수복하여 1등공신에 책봉되었다. [관련사료](#)

다음으로 이인임은 1363년(공민왕 12) 고려 국경을 침입한 덕흥군(德興君) 세력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활약하였다. 당시 원은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덕흥군을 새 왕으로 삼겠다고 통보하였다. 덕흥군은 충선왕(忠宣王)의 서자(庶子)라고 알려진 인물로, 승려로 출가하였다가 원으로 도망쳐 고려와 원의 이해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하였다.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면서 부원세력(附元勢力)인 기철(奇徹) 세력을 제거하자 이에 원한을 품은 기철의 여동생 기황후(奇皇后)가 공민왕을 폐위시키려 했던 것이다. 원에서 덕흥군에게 군대를 딸려 보내자, 고려 조정은 군을 동원하여 이에 맞섰다. [관련사료](#) 이인임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서북면도순문사 겸 평양윤(西北面都巡問使 兼 平壤尹)으로 임명되어 병력과 군량 보급을 맡았다. [관련사료](#)

이듬해 1월에 고려군은 원의 군대를 성공적으로 격퇴한다. 특히 이성계 등의 활약이 눈부셨다. 덕흥군이 끌고 온 1만 명의 병사 중 17명만이 살아서 돌아갔다고 한다. [관련사료](#) 하지만 이는 결과적인 이야기이고, 압록강을 경계로 대치하고 있던 그 해 12월의 전선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병사들은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며 사기가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고, 작전권과 지휘권을 중앙에서 쥐고 있어 현장의 장수들은 상황에 빠르게 대처할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압록강을 건너 요동의 덕흥군 병력을 공격하라는 작전이 내려오자, 이인임은 이를 무리라고 판단했다. 이인임은 공민왕에게 편지를 보내 이 작전이 무리임을 깨닫고 철회하게 유도하여 왕명을 받아내는 한편, 원수(元帥)인 경천흥(慶千興)에게도 미리 이해득실을 따지며 공격을 주저하도록 설득해둔 뒤에 전달된 왕명을 보여주는 복잡한 수를 두었다. [관련사료](#)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최선의 결과나 나올 방법을 구상하며, 이 방법을 구현해 내되 누구의 심기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며 각자가 스스로 상황을 깨닫고 판단하게 하도록 유도하는 뛰어난 책사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 장면이 이인임의 정치적인 감각과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닌가 싶다. 『고려사』 편찬자가 이 일화를 자세히 기록해 둔 것도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 뒤로도 이인임은 탄탄대로를 걸었다. 삼사우사(三司右使)를 거쳐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에 오르고, 순성동덕보리공신(純誠同德輔理功臣) 칭호를 하사받고 좌시중(左侍中)까지 올랐다. 1374년(공민왕 23)에 잠시 파면되었으나, 다시 수시중(守侍中)이 되고 광평부원군(廣平府院君)에 봉해졌다. 신돈(辛旽)이 권력을 쥐고 조정의 인사들을 내쳤던 때에도, 그 신돈이 제거가 되고 또 한 번 풍파가 휘몰아칠 때에도 이인임은 계속 요직에 있었다. 대단한 정치적인 처세가 아닐 수 없다.

### 3 우왕을 옹립하고 권력의 정점에 서다

이인임을 신임했던 공민왕은 어이없는 비명횡사를 당했다. 그가 다시 수시중에 오른 지 세 달 뒤인 1374년(공민왕 23) 9월, 공민왕은 환관 최만생(崔萬生)과 행신(幸臣) 홍륜(洪倫) 등에게 잔인하게 시해당했다. 왕실과 조정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이인임은 병풍과 최만생의 옷에 묻은 혈흔을 보고 국문하여 진상을 파악하고, 이들을 투옥하여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관련사료

공민왕 시해법은 잡았지만, 이제 차기 국왕을 정하는 문제가 대두하였다. 공민왕은 공인된 세자를 두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공민왕의 어머니인明德太后(明德太后)와 시중 경복흥은 종친 중 한 사람을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이인임이 강력히 주장하여 왕우(王禰), 즉 공민왕이 밖에서 낳아와 자신의 아들이라 주장했던 모니노(牟尼奴)를 새 왕으로 옹립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관련사료](#) 바로 우왕이었다. 공민왕은 생전에 모니노를 공인된 세자로 삼으려 노력했고, 이인임을 후견인으로 삼았었다. [관련사료](#) 겨우 10세의 새 국왕. 권력은 이제 이인임에게 집중되었다.

### 4 친원? 친명? 숙청의 회오리를 일으키다

고려에서 국왕 시해와 차기 국왕 옹립이라는 정치적 격변이 벌어지던 이 무렵은 동북아시아의 정세도 크게 변화하던 시기였다. 한족(漢族) 주원장(朱元璋)이 세운 명이 한때 유라시아 전역을 호령했던 몽골의 원 제국을 다시 초원으로 밀어내고 새로 대륙의 주인으로 자리 잡던 시점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몽골이 그대로 쓰러진 것은 아니다. 초원에 자리잡은 몽골은 북원(北元)이라 불리며 여전히 명과 대립하고 있었다. 이들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17세기에 후금(後金)이 대두하던 시점에 가서야 벌어질 먼 미래의 일이었다.

명이 처음 대두하던 공민왕 시대부터 고려 정계는 원과 명 중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가를 두고 갈등을 빚곤 하였다. 공민왕 말기, 고려는 친명(親明) 정책을 택하고 있었다. 당시 조정의 주요 정치 세력을 이루었던 이른바 신흥유신(新興儒臣)들은 이러한 정책의 강력한 지지자였다. 그러나 명은 고려에 대해 그리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가령 공민왕 시해 직전에 고려에 말을 요구하러 왔던 명의 사신 채빈(蔡斌)은 극도로 무례하고 난폭하게 굴어 고려의 재상들까지도 모욕하곤 하였다. [관련사료](#) 고려 국왕 시해, 명과 북원의 대립, 난폭한 명의 사신. 각각 돌고 있던 세 개의 톱니바퀴는 이인임이라는 가운데 톱니바퀴가 끼워지자 새로운 방향으로 돌기 시작하였다.

우선 공민왕이 시해당하기 직전, 고려는 말 3백필을 보내며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 김의(金義)에게 요동까지 채빈을 비롯한 명의 사신단을 따르도록 하였다. [관련사료](#) 김의는 외국인으로서 고려에 귀화하여 종2품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그런데 요동으로 가는 여정에서 채빈은 술에 취하면 김의를 죽이려고 하는 등 여전히 난동을 부렸다. 김의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채빈을 해칠 생각을 품었다고 한다. [관련사료](#) 여기에 이인임의 부추김이 더해졌다. 명에서 국왕 시해의 책임을 재상인 이인임에게 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관련사료](#) 채빈에 대한 불만에 이인임의 부추김이 더해지자 김의는 결국 채빈 부자를 살해하고 말을 가지고 북원으로 달아났다. 고려의 고위 관리가 명의 사신을 죽이고 북원으로 도망친 이른바 '명사(明使) 살해 사건'. 국제적으로 큰 분쟁이 될 만한 큰 사건이었다.

이인임은 이 때 북원과 화친을 맺으려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명에 빨리 사신을 보내 공민왕의 서거를 알려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인임은 당연히 반대했다. 이렇게 시간이 가는 사이, 북원에서 갑자기 폭탄 발언이 전해졌다. 북원이 공민왕의 후사로 심왕(瀋王) 왕고(王高)의 손자인 탈탈불화(脫脫不花)를 임명하러 한다는 첩보였다.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다. 이인임은 백관을 이끌고 태조(太祖) 진영 앞에 나아가 우왕을 지킬 것을 맹세하고, [관련사료](#) 북원에 글을 올려 우왕의 승계를 알렸다. 북원은 이를 승인하는 사신을 고려에 파견하였다. 그런데 이 사신을 맞이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고려 조정에서는 큰 충돌이 벌어졌다. 대표적

인 신흥유신이라 할 수 있는 정도전(鄭道傳)을 비롯한 많은 관리들이 복원 사신을 맞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강력히 항의했기 때문이다. [관련사료](#)

정도전과 이첨(李瞻) 등은 이인임과 그의 세력을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인임은 분노하여 이들을 정계에서 숙청하였다. 혹독한 국문 끝에 이첨 등은 곤장을 맞고 유배형에 처해졌고, 정도전·김구용(金九容)·이승인(李崇仁)·정몽주(鄭夢周) 등 수많은 관리들이 유배되었다. [관련사료](#) "고려와 명, 북원 간의 관계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으나, 고려 정계에서 이인임의 권력은 확고하게 다져졌다. 당대의 명장으로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최영(崔瑩)도 이인임에게 우호적이었다. 그런 이인임에게 영합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이들도 자연히 많아졌다.

## 5 탐욕, 말년의 실각, 그리고 역사에 남은 오명

권력과 탐욕은 한 쌍이 되어 서로를 키우곤 한다. 권력을 쥔 자가 탐욕에 빠지고, 탐욕을 부리는 자가 권력을 쟁취하는 모습은 역사에서 흔하게 보인다. 이런 장면은 독자를 한없이 씁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결국 자신을 잡아먹게 되는 인과응보적인 장면으로 이어져 위안을 주기도 한다. 이인임의 경우도 그렇다.

이인임은 물론이고, 그의 주변에 모여든 지윤(池瀾), 임견미(林堅味), 염흥방(廉興邦) 등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뇌물을 바치거나 자기에게 아부하는 사람에겐 관직을 주고, 일가 친척들을 좋은 자리에 넣어주고, 죄를 지어도 뇌물을 바치면 용서해 주는 등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들이 자행되었다. 재판의 판결도 먼저 이인임의 뜻을 묻고 내려졌다. 이인임의 측근들은 백성들의 집과 토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곤 하였다. 어린 국왕인 우왕은 이인임 일파가 매와 사냥, 술과 여자로 유혹하여 제대로 된 정치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 [관련사료](#) '〈이인임의〉 전원(田園)과 노비는 온 나라에 두루 걸쳐 있었으며 장상(蔣相)이 모두 그 문(門)에서 나왔다'라고 묘사될 정도였다. [관련사료](#) 1386년(우왕 12)에 그가 노환으로 사직할 때까지, 이렇게 국정이 농단된 세월이 13년이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인임 일파의 전횡은 1388년(우왕 14) 갑자기 끝났다. 이들의 전횡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우왕이 최영·이성계(李成桂) 등과 함께 전격적으로 공세에 나섰다. 계기는 염흥방이 일으켰던 이른바 '조반 무고 사건'이었다. 우왕은 염흥방이 사리사욕을 위해 조반을 무고한 것으로 확인되자 전격적으로 그를 처형하고, [관련사료](#) 이어 임견미 일파도 제거하였다. [관련사료](#) 이인임도 경산부(京山府)로 유배되었다. 그의 일가 친척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유배형에 처해지거나 처형되었다. [관련사료](#)

한 순간에 벌어진 몰락이었지만, 이 장면에서도 그동안 쌓아온 이인임의 노획한 정치적 처세는 힘을 발휘했다. 그의 열전에서 '측근들을 요직에 많이 임기 위해 부드럽고 아첨하는 것으로 힘써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니 문객들이 뜰에 가득하였는데, 각자 자신이 가장 후대 받는다고 여겼다.'라고 묘사한 것은 앞에서 다루었던 그의 일화와 맥락을 같이 한다. 강경하게 염흥방 등을 숙청한 최영도 이인임에 대해서는 "이인임이 사대를 결정하여 국가를 안정시켰으니 공이 가히 허물을 가립니다."라고 하며 감싸주었고, 결국 그 자제들까지 모두 사면을 받았다. [관련사료](#) 그 해 6월 창왕(昌王)이 즉위한 뒤에 정권을 잡은 조민수(曹敏修)는 이인임을 복권시켜 다시 정계로 소환하려고까지 하였다. 물론 이 때 이미 이인임은 사망하여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그의 처세술에 대해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이인임은 이렇듯 유배형에 처해진 지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났다. 염흥방이나 임견미의 집안이 철저하게 숙청된 것에 비하면 이인임의 집안은 오히려 매우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 권력의 정점에서 있다가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으니 본인은 한탄을 하며 숨을 거뒀겠지만, 생전에 그리 험한 꼴은 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사후에도 이인임에 대한 비판과 공격은 그치지 않았다. 예전에 그가 숙청했던 이른바 신흥유신 계열의 관리들이 이인임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윤소종(尹紹宗)과 오사충(吳思忠)은 거듭 장문의 상소를 올려 이인임을 극렬히 비판하며 이인임을 부관참시(剖棺斬屍)하고 그 집을 연못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련사료](#) [관련사료](#) 당시의 극심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이승인과 이색(李穡), 조민수 등이 탄핵을 받을 때에도 이인임과의 관계가 반드시 거론되곤 하였다. 그만큼 이인임과 관련된 사람은 많았고, 정치적 갈등 과정에서 사후에도 수없이 거론이 되었다. 이인임과의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에게 공격을 당하는 약점이 되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말이 있듯이, 그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듯한 만큼 그에 대한 비판도 혹독했다. 훗날 조선을 건국할 때 '우창비왕설', 즉 우왕은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라는 설이 중요한 논지가 되었으니, 그 우왕을 옹립한 이인임도 더욱 혹독하게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고려사』의 간신 열전에

수록되어 역사에 길이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살았을 때에는 정치적인 감각을 발휘하여 처세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었으나, 죽은 뒤에는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